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행정신도시의 중심축건물
우리는 3,813 최대낙찰!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23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12월 11일 (음력 11월 14일) 목요일

광주·전남 수능 성적 높아졌다

채점 결과 분석 … 상위권 비율 전국 평균 웃돌아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광주·전남지역 수험생들의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8·15·20면〉

광주시교육청은 10일 광주지역 수험생 중 언어 영역 1등급 비율이 5.92%로 전국 평균(4.23%)보다 높았으며, 2등급 비율도 9.89%로 전국 평균(7.44%)에 비해 2% 포인트 이상 웃돌았다고 밝혔다.

까다롭게 출제돼 변별력의 기준이 된 수리 영역에서도 수리 가형의 1등급 비율이 6.57%, 나형의 1등급 비율이 8.67%로 각각 전국 평균치(4.08%·4.22%)보다 2.5~4.4% 포인트 높았다. 외국어 영역의 1등급 비율도 전국 평균(4.17%)보다 높은 5.9%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수험생 중 언어·수리·외국어 영역과 탐구 영역 4과목 등 7과목 모두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모두 29명으로 지난해 26명에 비해 3명 늘었다.

전남지역도 최상위권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수험생 중 언어 영역 1등급 비율은 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지난해 3.7%에 비해서는 0.3% 포인트 증가했다. 수리 영역의 1등급 비율은 3.9%, 외국어 영역은 3.1%로 지난해 보다 각각 0.4%, 0.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지난해 9명에서 16명으로 무려 7명이 늘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대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인 2개 영역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1천578명으로 올해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발표한 수능 채점 결과와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 분포에 따르면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40점, 154점, 158점, 136점으로 예년에 비해 상승했다. 어렵게 출제된 수리 영역은 10점 안팎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입시기관들은 서울대 경영대 등 인문계열 최상위권 지원 가능 점수로 표준점수 560점(800점 만점), 의예과 등 자연계열 상위권은 559점선으로 분석했다. 광주·전남지역 인문계열에서는 전남대 국어교육과와 영어교육과가 522~530점, 광주교대 514~525점선, 자연계열은 전남대 의대가 544~545점, 동신대 한의예과는 533~545점대에서 합격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재호·정상필기자 lion@kwangju.co.kr

친구야 넌 몇점이니?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수험생들에게 통지된 10일, 대광여고 3학년 학생들이 성적표를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감세 입법' 내년 교부세 감소

광주 720억·전남 5,850억원

재정 운용 초비상

정부가 감세를 위한 입법 등을 추진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지방교부세(기초자치단체 포함)가 각각 720억원과 5천85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감소와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완화, 국고보조사업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금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5조6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일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종부세 감소로 줄어드는 부동산 지방교부세 보전 명목으로 예비비를 1조1천억원밖에 배정하지 않아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총 4조5천억원 가량 결손이 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총 지방교부세의 1.6%인 4천934억원를 배정받은 광주시는 내년도에는 약 200억원의 부동산교부세를 포함해 총 720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에 이어 지방교부세 배정액이 2위인 전남도(3조7천248억원, 13%)도 300억원의 부동산교부세를 포함해 총 5천85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고정 경비와 사회복지예산, 지역자체사업 등에 쓰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예비비를 4조원 이상 대폭 증액할 것과 항구적으로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는 세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감세 방침에 따라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시·도는 파행적인 예산 운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희종·윤영기기자 chae@

'4대강 정비 사업' 지방발전대책 주요 사업 포함

영산강 뱃길 복원 '탄력'

영산강 뱃길 복원 등 '4대강 정비 사업'이 오는 15일 발표되는 '지방발전종합대책'의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4대강 정비사업'은 단순한 수질 개선 사업을 넘어 경기 부양과 지역균형발전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청와대 이동우 홍보1비서관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7일 국토해양부 수자원국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이 오는 15일 발표될 지방발전종합대책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며 이에 대한 홍보 전략을 자문해왔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어 "당시 '4대강 정비 사업' 발표 이후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일방적인 정부 홍보는 오히려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론조사를 우선 실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을 국토해양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산강 뱃길 복원 등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수질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 부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 핵심 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4대 강 정비 사업은 홍수 예방은 물론, 지구온난화와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하천 수질도 개선하는 등 4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며 "다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위한 우회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시의회·시민단체 "문화전당 공사 빠른 정상화를"

광주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에 따른 문화전당 조성 공사의 중단과 관련해 "조속한 전당 공사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진보연대 등 광주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10일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시민사회단체의 1차 집담회를 통해 '기존 설계안 존중'이 다수 의견으로 나왔고 '합의에 의한 해결방식'이라는 과제가 도출됐다"며 추진단과 공대위 등 당사자가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박광태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추진단과 공대위측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2차 집담회에 참석해줄 것을 제안했다.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상징적인 유적지인 도청 별관 원형보존을 위한 공대위의 노력과 진정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한다"며 "문화전당 사업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돼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위원회(위원장 최협)는 11일 서울 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도청 별관 논란을 비롯해 문화전당 조성사업에 대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별관 문제로 건립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자칫 공사 중단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HANER 우리아이 키? 성장클리닉 참연한의원 ☎371-1075~6